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창세기 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 본문에서 아브람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가 실제로 참된 축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1,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1절에서 아브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보장된 직장, 안정적인 수입, 가족.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브람의 상황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 답은 아브람을 부르신 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위해 지금의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또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부, 안정, 지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아브람의 부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 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세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항상 희생이 필요하며, 우리의 옛 본성과 습관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2, 아브람을 위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다는 확신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결심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 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설교본문 2,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는 확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본문구절을 창세기에서 이전에 나온 내용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 복음이 달려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죄의 저주가 땅에 무겁게 깔려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 가운데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인가요?

3, 아브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승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죄의 저주를 풀어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을 통해 세우신 나라에서 참된 축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축복받은 삶을 가능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가져다줄 축복이 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 사도행전 3:25-26). 크리스마스는 결코 동떨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마구간 속의 아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축복과 참된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은 아브람의 하나님이신 그 분의 부르심을 우리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정한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아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로를 격려하며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